

[ 종합 ]

F1대회·전략산업 육성·농어촌 재개발

(자동차경주대회)

전남도 3개 부서 신설

민선 4기 출범 앞두고 조직개편 추진  
경제분야 기능 강화... 행정분야 축소

전남도가 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11일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선 4기 조직을 정비키로 했으며, 경제분야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는 대신 행정·지원분야는 축소키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선 4기 출범 및 마을 재정비 담당 부서 등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제부서 역시 중요도에 따라 인원과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부서의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 또는 '계' 단위로 인원과 기능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등 3명도 지방직화하기로 했다. 또 공직중인 행정부서사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경제 마인드가 있는' 인사를 이달 중 선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실·국별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뒤 오는 30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반기 인사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7월 말에 단행할 계획이다.

김양수 행정혁신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경제분야 강화, 행정·지원분야 축소'가 핵심"이라며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반기 인사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평화·인권·통일의 광주

3 '광주정신' 세계로 승화해야

"5·18은 민주주의 교과서"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에게 '민주의 상징'이자 '희망'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5월 정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아시아인들이 지속적으로 광주를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일궈낸 시민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 교과서다. 민주화운동 26년이 지난 지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 평화의 전도사들이 대거 광주에 온다.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상자(7명)와 수상단체(7개), 국내외 인권 운동가들이 오는 15일~17일 광주에서 모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시민 서포터즈 30여명이 11일 광주 동구 운림동 문민정사 앞에서 행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키리기자 jrwi@kwangju.co.kr

한반도 평화·인권신장 모색  
여 '5·18정신'과 '인권·비폭력'을 주제로 회의를 갖는다.

아프리카와 동티모르, 과테말라 등 전 세계에서 독립투쟁이나 민주화 운동, 인권 신장운동 등을 주도한 평화 사도들이 이제 '5·18정신'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민주주의 확산 및 인권신장을 모색하려 한다.

이 같은 대규모의 광주정상회의는 5·18민주화운동이 단순히 독재에 대한 투쟁의 의미를 넘어서 비폭력과 평화를 지향한 민주주의 운동이었으며, 이는 노벨평화상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비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5·18정신을 세계로 승화시켜 '광주'를 평화·인권·통일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잡게 할 두 행사에 대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한 수십명의 국민급 해외 인사들의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수시로 교통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행사 준비기관은 물론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관광객·투자 유치 연계 기회

'광주'를 국제적인 브랜드로서 각인시킬 수 있는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와 '6·15민족통일대추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같이 뜻깊은 행사들이 월드컵 축제에 밀려

자칫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행사는 오는 14~17일 열리는 탓에 13일 한국-토고전 이후 월드컵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경우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6·15민족통일대추전 행사위원회는 각각 서포터즈를 통한 홍보와 콘서트, 사진전 등을 통해 행사를 알리는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의 위상을 세계 속에 높일 수 있는 무형의 효과 뿐만 아니라 광주 인지도 상승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 촉진 등 유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다. <끝>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너무 앞서가는 분(?) 잘 들으세요!

수도권·서해·남해안 잇는  
자전거 일주도로 만든다

수도권과 서해안, 남해안을 잇는 전국 규모의 자전거 일주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행정대교와 인천, 군산, 목포, 여수, 창원, 부산을 잇는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건설이 행정자치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전거 도로는 오는 2010년까지 길이 1천218km, 폭 4m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자전거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관광지를 연계한 노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행정부는 이 같은 분석에 따라 12일 해당 지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선조정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DJ, 방북 앞서 북측대표단 만날듯

광주 민족대추전 특별연설

방북을 앞두고 있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6·15 민족통일 대추전' 행사에서 북측 대표단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6·15 민족통일대추전 행사에 따

르면 김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광주에서 열리는 '6·15 대추전'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며, 자리에는 남북 당국대표단도 참석해 행사에서 북측 대표단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6·15 민족통일대추전 행사에 따

당초 김 전 대통령측은 15~17일 광주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일정을 일찌감치 잡았으나 같은 시기에 겹쳐서 열리는 6·15 대추전 행사 참석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백낙청 '6·

15 대추전 행사' 상임대회장이 김 전 대통령에게 개막식 연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 동교동족의 설명이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남북을 오가며 열었던 '통일 대추전' 행사를 다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6·15 대추전 대표연설은 방북을 염두에 둔 김 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분묘개장광고(1차)
장사비용면제 제2호 및 동생시영규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덤번호 제1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장 광고합니다.
1. 분묘번호: 111-111-111
2. 개장일: 2006. 6. 12
3. 개장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4. 개장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1-111-111

부동산매각입찰공고
1. 매각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1-111-111
2. 입찰일: 2006. 6. 15 (목) 오후 2시
3. 입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1-111-111
4. 입찰금: 100,000,000원

무담보 긴급자금
담보없이 어음, 당좌, 수표로
긴급한 자금을 즉시 현금 대출
해드립니다. (등록번호 제8261호)
(교환자금, 유동자금 부족분등)
010-3129-0890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독일보청기
독일보청기백화점
02-222-1510 08573-5106

산행안내
▲양봉산악회
▲광주도요산악회
▲광주도요산악회
011-602-4972

글로벌 벤처기업을 꿈꾸는.....
유망기업 입주모집 공고
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에서 직접운영하는 창업지원기관인
광주드림파크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 입주대상
\* 모집규모: 5개사 내외
\* 입주조건
\* 모집일정
\* 제출서류
\* 문의

신입/경력사원 모집
저희 리더스클럽은 단체연회부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외식업체로서 품격 높은 예식과 가족 연회(홀, 장수연 등), 관공서나 기업체 등 각종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맞춤형 음식과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1. 모집구분
모집구분 모집인원 자격요건
2. 모집기간
-2006년 6월 9일(금) ~ 6월 19일(월)
3. 회사/직무소개
-당사 홈페이지 참조(www.leadersclub.or.kr)
4. 전형일정
5. 지원방법
6. 문의처

산행안내
▲양봉산악회
▲광주도요산악회
▲광주도요산악회
011-602-4972